

막살이집의 研究

金 鴻 植

1. 머릿글

막살이 形式의 집은 自立의 경제능력을 갖지 못하고 남의 집에 딸려서 경제활동을 하며 다만 기거만을 따로하는 일종의 大家의 附屬舍에 가까운 집이다.

이 형식의 집은 民家를 時代的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때 古代樣式에 속하는 집이다. 古代樣式이란, 엄격한 신분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주택양식에 있어 신분의 차이에 따른 2중구조가 현저하게 진행되어 상층계급의 주택과 하층계급의 주택이 서로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다른 평면을 갖게 된 시기의 주택양식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古代樣式이란 古代에 있어서 下層民의 주택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범위가 쓰이게 된다.

2. 외통형

외통형집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분포했던 집으로서 현재도 산간 벽지에서는 간간히 볼 수 있다. 외통형 집은 극소수 존재하고 있는 2칸집을 포함해서 가장 규모가 작고, 살림방과 부엌 및 앞뒤에 설치된 토방만이 나란히 옆으로 구성된 집이다. 즉, 전형적인 외통형집을 말한다.

(1) 맞걸이 三間집

「맞걸이 三間집」이란 맞걸이 三樑의 구조로 된 집인데 이런 型의 집을 안채로 삼고 사랑채 없이 외양간, 뒷간, 찻간 등의 부속시설물들이 住居空間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그 예로서 權五興씨 맥(榮州郡 浮石面 素泉 751)을 살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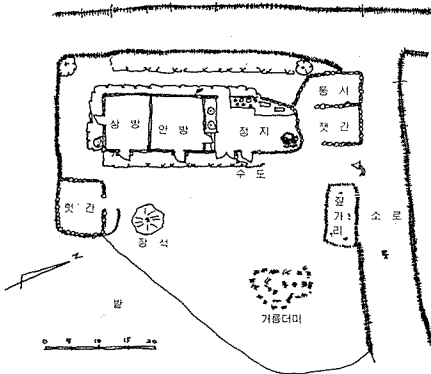


그림 1 영주군 부석면 소천리 751權五興씨맥

이것의 평면은 긴네모꼴의 긴변을 정면으로 삼는다. 평면의 간살이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前面을 셋으로 나누어서 오른쪽부터 부엌, 안방, 그리고 옷방이 일렬로 배열해 있다. 안방과 옷방 앞에서 서까래를 약간 길게 뽑아 토방을 두었을 뿐, 앞쪽에 퇴간을 이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맞걸이 3칸집」이라고 한다. 부엌은 3칸집의 오른쪽 간살로서 여기에 옆으로 퇴칸문을 달아내고 거기에 측벽을 밖으로 더욱 내쌓아 공간을 크게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자기가 속해있던 大家로부터 떨어져 나와 스스로 취사생활을 하게 되자 더 넓은 부엌공간이 필요해서 부엌을 증축했으리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가운데 간살인 안방의 형태는 바른 네모꼴이고, 왼쪽 간살인 옷방은 전면의 길이가 안방보다는 약간 짧다.

이런집은 거의 모든 지방에 걸쳐 널리 분포하지만 그 숫자는 아주 드물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 이 집보다 더욱 간단한 형태는 부엌과 방 하나로 구성되고 곁에 눈썹지붕을 붙여서 연료창고나 외양간, 뒷간등으로 이용하는 2칸집인데, 이런 類의 집은 거의 사라졌고 다만 남부지방의 내륙 산간에서나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다.

(2) 3칸 一字퇴집 (I)

3칸 一字퇴집(工)은, 구조적으로는 전퇴(前樾)집이지만, 앞퇴의 가운데 간살만 前面으로 개방하여 뜨락(토방)을 만든 집을 말한다. 이때 역시 一字 모양의 헛간채가 7자나 二(두이)字 형태로 배치되기도 하며, 구조는 대부분 맞걸이 3량인 3칸집이다. 이런 류의 집은 남부 및 중부 내륙 지방과 일부 해안지방까지 널리 분포한다. 이집의 격리시설인 헛간채는 건축년대가 안채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안채는 부속건물 없이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實例로서 음문형씨맥(忠北 楸山郡 靑安面 雲谷里 113번지)

긴네모꼴의 안채는 긴변을 마당쪽으로 향하여 東北向(亥坐己向)으로 앉아 있으며 構造는 無高柱三前樾집이다. 평면의 간살이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前面을 셋으로 나누어서 왼쪽은 부엌, 가운데는 前面에 뜨락(토방)과 後面에 안방이 놓이며 오른쪽에는 옷방이 배치되어 있다.

부엌은 間을 길게 해서 공간을 크게 이용하며 한칸 반 크기의 긴네모꼴이다. 뜨력은 前面이 개방되어 있으며 부엌과 옷방의 前面 선에서 후퇴하여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안방은 크기가 한칸이며 바른네모꼴에 가까운 모양이고 옷방은 한칸 반 크기의 긴네모꼴이다. 이 집에서는 이 방을 사랑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방은 庫房 혹은 옷방+사랑방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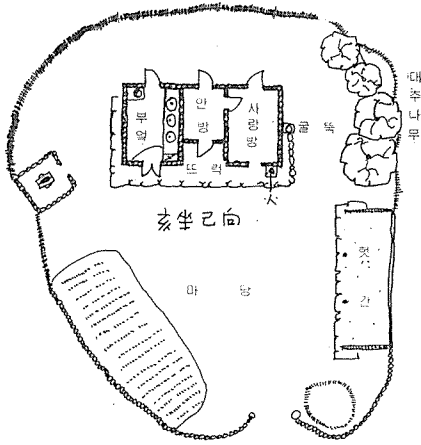


그림 2 槐山郡 靑安面 雲谷里 113 음문형씨댁

헛간채는 안채의 오른쪽 모서리에 마당을 향해서 ㄱ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平面의 간살이는 모두 헛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퇴가 없는 맞걸이 三間의 구조이다. 벽의 前面은 개방되었고 바깥벽은 흙벽이며 안벽은 간이형식으로 되어있다.

안채와 헛간채의 앞에는 54尺×46.5尺(가로×세로) 크기의 마당이 놓여 있다. 마당과 안채, 사랑채 뒤로는 싸리울을 둘러쳤고 마당 前面 오른쪽에는 문없는 入口를 만들었다. 마당 왼쪽의 안채 모서리 쪽에는 갯간을 설치했고 그 앞에는 텃밭을 배치했으며 안채 오른쪽 울타리 곁에는 대추나무를 심었다.

이런 類의 집은 그 평면의 변화가 다양하므로 다음에 이와 같은 집들을 설명하겠지만, 여기 설명에서 빠진 집도 많다는 것을 부연해 둔다.

(3) 三間 一字퇴집(II)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집이다. 아주 빈한한 사람들이 살거나, 6.25 후에 임시로 축조한 소농계층이 사는 이 집은 전국에 散在해 있다. 그 實例로서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3리에 있는 金福萬氏宅을 들겠다.

이 집은 긴네모꼴 평면의 긴변이 前面으로 向하여 있고 방위는 동남에서 약간 남으로 기울어져 있다. 안방과 옷방은 통나무를 횡으로 쌓은 귀틀집이고 부엌과 전퇴는 三樑집으로 처리한 특징있는 架構式 구조이다.

평면의 간살이는(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을 셋으로 나누어서 왼쪽 간살은 앞퇴를 한칸 크기의 부엌을 만들고 가운데는 한칸 크기의 안방이 되며 오른쪽에는

역시 한칸 크기의 옷방이 설치된다. 안방과 옷방 앞의 퇴는 토방(이 지방에서는 처막이라 부른다)이 되어 앞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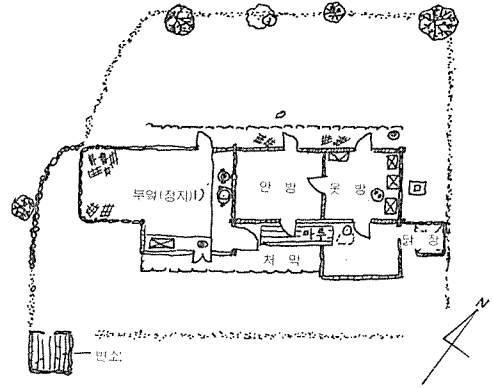


그림 3 정선군 북면 여량3리 김만복씨댁

부엌은 큰 한칸 크기의 바른네모꼴 공간이다. 그래도 공간이 부족했던지 왼쪽 측벽에 가로 8尺, 세로 9尺 크기의 나뭇간을 덧달아서 크게 쓰고 있다. 이처럼 부엌 공간을 더 크게 증축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빨감의 열량이 점차 낮아진 것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나뭇간의 공간이 커져야 되는 필요성 때문인 듯하다. 또한 이 집은 전에 솔거노비의 살림채였으므로 취사시설이 불필요하였으나 점차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가면서 취사공간을 확보해 나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뚜막은 안방과 뜨력쪽에 설치되었고 토단은 나뭇간을 제외한 二面에 시설되었다.

옷방은 한칸 크기의 바른네모꼴이고 안방은 이것보다 약간 가로로 긴네모꼴이다. 이 집은 현재 몹시 가난한 사람들이 각방에 세들어 살고 있으므로 옷방은 따로 솔을 걸어 놓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옷방이라기 보다는 사랑방에 가까우나 이 집 사람들은 옷방이라고 부르고 있다. 안방과 옷방의 토방은 마루가 없고 앞이 개방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이것을 처막이라고 한다. 안방 앞에도 조그만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인 듯 마루밑에 안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그대로 있었다. 옷방 앞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방이 살림을 따로 하므로, 우드기를 둘러쳐서 출입은 부엌의 반대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우드기라 하는 것은 짚으로 만드는 것이 常例인데 이 집에서는 판자로 둘러치고 있었다. 뜨력은 안방 벽에서부터 7.15尺이 내밀었으며 우드기는 이 처막 끝 밖으로 내밀고 있다.

이 집은 농가가 아니고 품팔이로 벌어 먹는 사람들의 집이기 때문에 마당이 몹시 작다. 마당 앞에 텃밭이 만들

어졌고 마당과의 경계는 싸리울이 둘러진 것으로 봐서 필요없는 마당을 줄이고 텃밭을 키운 것 같다. 마당 앞의 부엌 쪽으로 변소가 임시전물처럼 만들어졌고 옷방 동쪽으로는 닭장이 설치되어 있다. 변소는 판자벽에 박공지붕으로 된 단칸집이다. 이 집 뒤에는 앞마당과 울담으로 막혀져서 이 지방의 특색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뒤안이 있다. 즉, 앞마당에서는 직접 뒤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반드시 부엌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뒤안의 機密性이 보장되고 있다. 정지간 앞에 있는 조그만 밭에는 울을 둘러서 가축의 침입을 막고 있다. 이와 같이 텃밭을 울로 둘러쳐서 구획짓는 것도 이 지방의 특색중의 하나이다.

이 집은 동네에서 이 집을 축조한 연대를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래된 집이다. 이런 類의 집은 極小農의 주택으로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있는데 이 집은 귀틀집으로 되어 있어서 또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4) 三間一字 퇴집(III)

이런 류의 세번 째 예로서「韓漢植」씨宅(경북 영주군 부석면 소천리)을 살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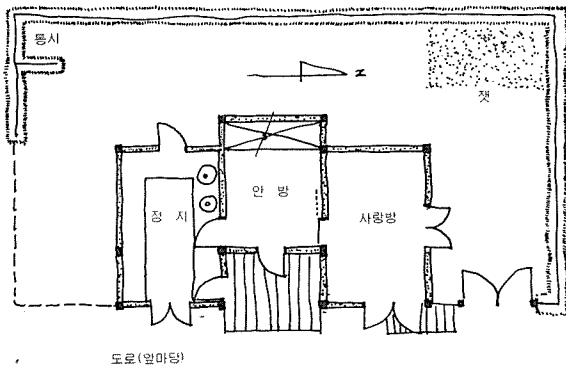


그림 4 영주군 부석면 소천리 한한식씨댁

평면은 긴네모꼴인데 긴변을 前面으로 삼는다. 평면의 간살이는(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前面을 세 칸으로 나누어서 왼쪽 간살은 부엌으로, 가운데 간살은 앞부분을 퇴마루로 뒷부분은 안방으로 오른쪽 간살은 사랑방으로 하고 있다. 부엌은 칸반 크기의 긴네모꼴이고 마루는 가운데 간살의 앞퇴에 놓였는데 건물의 앞벽보다 2尺3寸 앞으로 내밀어 만들었으며 앞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안방은 가운데 간살의 뒷부분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건물보다 2尺2寸을 뒤로 빼내어 만들었으며 이 때 달아낸 부분은 收藏空間으로 利用하고 있다. 사랑방은 집의 오른쪽 간살로서 부엌처럼 앞퇴까지를 모두 利用한다. 사랑문앞에는 幅 2尺정도의 쪽 마루가 한쪽에만 설치되었다.

이 집은 現在 길에 面하여 있으므로 앞마당은 없고 길 이 마당같은 행세를 하여 실제 그렇게 利用되고 있다. 사

랑방 오른쪽에는 사립이 끝에 면하여 나있고 집의 오른쪽 쪽과 뒤쪽에 뒤안이 만들어져 있다. 뒤안의 왼쪽 후내진 곳에는 통시(변소)가 만들어져 있고 오른쪽 뒤는 재를 모아두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이 집의 方向은 戌坐辰向이다. 이런 집의 形態는 南部地方에 널리 分布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다.

3. 도장형

도장형 집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악지방에 분포한다. 앞의 외통형집과 그 평면구성은 같으나 살림방인 옷방이 앞뒤로 나뉘어져 사랑방이나 도장방이 된다. 즉, 옷방의 접대기능과 수장기능이 각각 필요하거나 강조되는 공간으로 분화된 것으로서 이 점에서 외통형집과의 다른 점이 발견된다. 평면기둥의 배열과 그 간격은 외통형과 같다.

(1) 一字도장집(I)

一字도장집이란 「三間一字도장집」의 준말이다. 이런 類의 집에는 앞서 말한(三間)一字퇴집의 옷방(혹은 사랑방이라고도 불리운다)의 뒷쪽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도장이 배치되어 있다. 옷방이란 원래 예비공간으로서 취침기능과 동시에 수장(收藏)기능도 갖고 있다. 이러한 복합기능이 독립해서 들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던 계층에서 약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층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의 실례로서 김수열씨댁(강원도 명주군 사천면 진리 1구 4번지)을 들기로 하겠다.

이 집은 맞걸이 三間집인데도 불구하고 전퇴가 설치된 집과 같은 평면을 보이고 있다. 이 지방에 아주 드물게 분포하는 이러한 집은 경북 영주 지방의 3칸집과 간살이가 같고(구조는 다르다) 충북 산간 지방의 3칸집의 간살이와 비슷하다. 남에서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져서 癸坐丁向의 방향을 갖고 있는 이 집은 긴네모꼴의 긴변이 前面으로 向해 있다. 고주나 퇴간 없이 평주에 3량만 걸친 맞걸이 3량의 구조를 가진 이 집의 평면 간살이는(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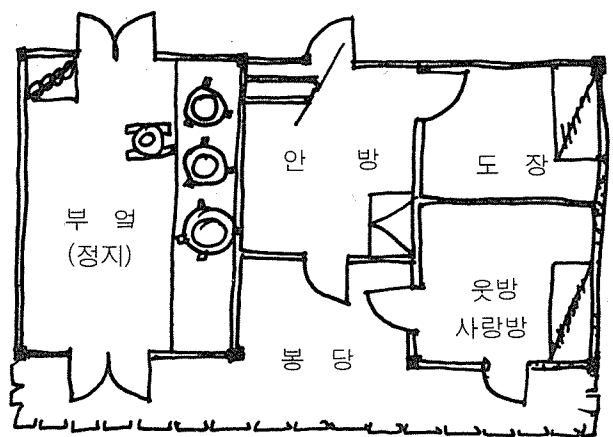


그림 5 명주군 사천면 사천진리 1구 4번지 김수열씨댁

前面을 셋으로 나누어 왼쪽은 부엌, 가운데는 앞쪽에는 봉당을, 그리고 뒤쪽에는 안방을 놓았으며 오른쪽은 앞쪽에 사랑방(웃방이라고도 부름)과 뒷쪽에 도장을 각각 배치하고 있다.

긴네모꼴의 부엌은 어느 지방의 전퇴 좌태를 개방한 크기와 거의 맞먹는 정도의 공간이다. 봉당은 남부지방의 토방과 거의 같은 것인데 앞쪽은 다른 지방에서나 마찬가지로 개방하고 있고 기타부엌, 안방 및 사랑과의 경계에는 벽을 만들어 놓았다. 또한 봉당 앞은 토방에 연결되는데 이것은 부엌 앞에서부터 사랑방 앞까지 계속된다. 뜰 앞에는 뜰돌 없이 바로 흙으로 끝을 맺고 있다. 안방의 전면 반과 봉당 옆에 설치되는 사랑방과 안방은 각각 긴네모꼴이다. 사랑방을 웃방이라고 부르기엔 곤란한 점은 셋문이 안방과의 사이에 난 것이 아니고 봉당과의 사이에 난 것이다. 도장은 사랑방 뒤에 만들어지며 긴네모꼴이다. 도장은 고방과 같은 용도이므로 문은 안방쪽에만 난다. 도장은 바닥에 구들을 놓았을 때 그렇게 부르고 고방은 마루를 깔 것을 말한다.

이 집은 전형적인 어부의 집이었으므로 농촌에서 필수적인 헛간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당 맞은 편에 비스듬히 안채를 향해서(北向) 부속사가 한 채 있는데 여기에 변소간과 폐지우리를 설치해 두었다. 사다리꼴의 이집 마당을 통해서 마을의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 부엌 앞에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회모르탈로 샴터가 네모꼴로 마련되었으며 앞쪽으로는 하수도로 만들어졌다. 부엌 앞 왼쪽에는 텃밭이 있었는데 역시 전형적인 魚家인지라 남의 땅을 빌어 쓰는 중이었다. 이 집 뒤에는 부엌의 왼쪽 끝에서 도장의 오른쪽 끝까지 블록 담장을 쌓아서 뒤안을 만들었다.

이 집은 꽤 오래된 집으로서 현재 73세의 할머니가 30년 전에 이사해 온 집인데, 이 마을이 생길 때부터 지어진 집이라는 말이 노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런 집은 이 지방에서 썩 드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이와 꼭 같은 집은 없고 단지 충북(안채가 3칸이고 거기에 퇴사랑이 있다)이나 경북(3칸 퇴집)지방에 이와 비슷한 간살이를 가진 집들이 분포한다. 이러한 집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어민이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一字도장집(II)

이 집은 앞에서 예를 든 김수열씨의 집과 비슷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칸퇴집의 안방 앞에 봉당이 놓이는 것임에 비해 이 집에는 봉당이 아예 없고 부엌 옆에 외양간이 시설된다는 점이 앞의 예와 다르다. 이런 집의 실례로서 김내인씨택(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 2리; 1976년 11월조사)을 들겠다. 긴네모꼴의 이 집은 正東向으로 앉아 있다. 보통 이런 집인 경우 앞퇴를 단 4량집으로 처리하는 것임에 반해 이집에는 앞퇴가 없는 곁집 형식의 3량집 구조를 갖고 있다. 즉, 3평주3량집 구조이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면의 간살이는 전면을 셋으로 나누어서 오른쪽에는 칸반×칸반 크기의 부엌을 두고 가운데에는 역시 칸반×칸반 크기의 안방을 배치한다. 왼쪽에는 뒤쪽에 반칸 크기의 도장을 두고 앞쪽에는 한칸 크기의 사랑방이 시설된다. 이 집은 역시 영동지방의 특색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서 앞퇴는 설치되지 않는다. 또한 부엌 오른쪽 옆으로는 반칸 크기의 마굿간을 덧붙였고, 부엌과의 사이에는 구유를 두어서 직접 먹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구 앞쪽, 부엌의 오른쪽 옆에는 처마 밑에 판자를 둘러쳐서 소먹이를 넣어 두는 짚지우리를 시설했다. 이것은 앞에 개방되어 있어서 부엌 대문을 통해 물건을 꺼내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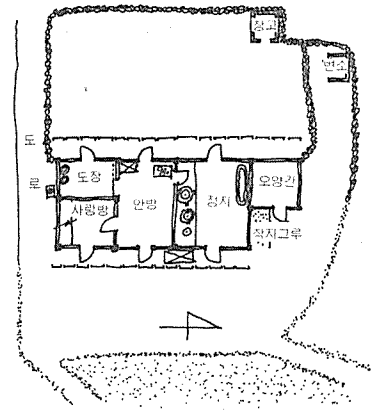


그림 6 정선군 북면 여량리 김내인씨택

사랑방 뒤에있는 도장은 영동지방의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안방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바닥에는 자리를 깔고 있는데 이것은 안방이나 사랑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집은 퇴가 없고 안방과 사랑방 및 부엌 앞에는 처마 안으로 조그만 토단이 돌아가며 이곳에서는 이것을(뜰광)이라고 부른다. 앞마당은 영동지방의 다른 가난한 집들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없으며 도로에 바로 연결된다. 긴네모꼴의 뒤안은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도록 담장(물샴)이 쳐져 있다. 뒤안 한쪽 구석에는 조그만 창고가 있고 부엌 오른쪽 뒤로는 변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 변소는 뒤꼍에서 들어갈 수 없으며 단지 앞쪽에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집은 대단히 오래된 집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여량리 金福萬씨택과 쌍벽을 이루는 집이라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집은 영동지방의 가난하고 오래된 집에서 가끔 볼 수 있다.

(3) 一字사랑방집(1)

이 집은 앞의 一字집과 같으나 뒷쪽으로 놓이던 수장공

간으로서의 도장이 앞쪽으로 놓이고 대신 방이름을 사랑방이라고 부른다. 그 실례로서 雲谷里 1구 150, 김재욱씨 댁을 든다. 도면삽입이 집의 안채는 서남향이고 그앞에 앞마당이 놓이며 출입구는 안채 맞은편에 사립문없이 설치되었다. 안채는 一字型인데 3칸 전퇴집으로서 오른쪽에 부엌을 설치하고 중앙에 안방을 놓으며 왼편에는 옷방을 배치한다.



中世樣式 안채形式 퇴사랑형
김재욱씨댁(운곡리 1구 150)

부엌은 한칸 크기에 전퇴를 개방하고 앞과 오른쪽을 덧달아서 크게 쓰며 안방과 옷방은 각각 한칸이다. (여기서 한칸의 길이는 대략 2.6m이다) 옷방앞의 전퇴에는 반칸 크기의 사랑방을 만들었는데 그앞에는 지붕만을 덧달아서 사랑부엌을 만들었다.

부엌의 오른쪽 한칸 거리에는 한칸 크기의 안변소가 있으며 그 앞에는 짚가리가 설치된다. 마당 오른쪽 앞에는 3칸 크기의 헛간이 만들어지며 전퇴가 없는 맞걸이(세마루)집인데 오른쪽 그 칸은 헛간이고 왼쪽은 외양간이다. 사립문 옆에는 두칸 크기로 사랑 변소와 짚간이 배치된다. 집안의 왼쪽 옆에는 커다란 텃밭이 만들어지며 안채 뒤에는 딸기밭이 있고, 그안쪽 구석에는 장독대가 놓여진다. 집 주위에는 감나무 52그루와 은행나무 한그루가 심어져 있다.

(4) 一字사랑방집(II)

이 집은 앞의 一字 사랑방집(I)과 같으나 전자의 경우 부엌은 전후 2칸이고 수장공간으로 쓰이는 사랑방앞부뚜막 위에는 눈썹지붕을 달아서 거의 양통집에 가까운 모양을 띠고 있는 반면, 이 집은 분명한 3칸 전우(前右)퇴

집에 비슷한 공간 배열을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 실례로서 괴산의 김재영씨(괴산군 청안면 운곡리 1구)댁을 들기로 한다.

이 집은 3칸 一字 前右퇴집으로 긴네모꼴 모양이고 역시 긴 변쪽을 앞마당으로 삼는다. 구조는 一高柱 平四梁집으로서 흙벽돌 방위는 寅坐申向 집으로서 서남향이다. 간살이는 가운데 뒤쪽 한칸의 크기는 2.6m x 2.6m 안방으로 하고 그 왼쪽 옆 한칸에는 옷방을 배치한다. 옷방 앞의 퇴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장공간인 사랑방이 놓이고 안방 앞퇴에는 마루가 깔린다. 오른쪽 간살은 칸 반 크기의 부엌이 배열되고 그 왼쪽 옆에는 뒤쪽으로 반칸 크기의 광이 시설되며 앞의 조그만 퇴에는 나뭇간이 된다.

안방과 옷방과 바른네모꼴 모양이고 사이에 셋물이 있다. 가운데 있는(퇴)마루는 전면으로 개방되고 안방쪽으로 출입문이 있지만, 사랑방에는 사면이 막아져 있고 옷방이나 마루쪽에 출입문이 없으며 그 반대쪽인 앞쪽과 측벽쪽에만 출입문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기능은 도장의 기능과는 전혀 별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뭇잎은 부엌쪽이 개방되어서 부엌 공간이 7字 모양으로 나있고 광은 사면이 막아져 있으며 부엌쪽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부엌 광은 중부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서 큰 특색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랑방이 앞의 도장과 다른 점은 도장집이 자기 집안의 경제생활을 중요시한 반면 이 집에서는 외부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한 점이다.

집 앞의 앞마당은 도로에 바로 면해 있고 울타리나 배문 시설은 없다. 앞마당은 거꾸로 세모꼴 모양으로서 밑변의 길이는 12.1m, 높이는 7.5m 정도이다. 이 마당의 서쪽 끝에는 헛간채가 놓이는데 헛간채는 맞걸이 3칸집으로서 오른쪽 1칸은 전면을 개방했고 가운데는 1칸반 크기의 돼지우리로 쓰고 있으며 마지막 반칸에 짚간과 변소를 겸용하여 배열하고 있다. 마당의 도로쪽에는 가운데를 빼놓고 양쪽으로 큰 거름더미를 만들어 놓고 있다.

집 뒤에는 부엌쪽으로 장독대가 놓이며 옷방쪽 뒤로는 텃밭이 만들어져 있다. 부엌 광 옆에도 몇그루의 조그만 나무가 있다. 이 집은 요즈음에 흙벽돌로 지은 것이다.